

現代哲學에 對한 所感(1)

(生)과 人間을 中心으로하고

權稷周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蘆)』라고 한 『파스칼』의 말은 우리에게 人間의 本質的 特徵의 하나를 提示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同時에 이와가튼 人間 即 思考하는 人間은 모든 學問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哲學』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 必然的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暗示하여 주었다고 생각된다. 왜? 哲學이란 度義에 있어서 한 『思考의 學問』이라고 할 수가 있는 까닭이다.

元來 人間도 亦是 한 개의 自然的 存在物인 것은 틀림 업스나 그러나 그것의 特徵的 性質의 하나인 思考作用을 하는 人間인 까닭에 思考의 學問으로서의 哲學은 結局 思考作用의 主體로서의 人間에 있어서 優位的 學問이 아니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가 普通 思考作用에 있어서 思考하는 主體와 思考되는 客體 即 思惟主觀과 思惟對象과의 두 가지로 난혼다. 그리고 보면 『생각하는 人間』(主觀)은 무엇(對象)을 생각하는 가라는 것이 問題될 것이다. 우리가 □朴의 思考를 쫓아서 批判的, 反省的 思考를 함으로써 한 개의 體系的, 組織的 『哲學』을 建設함에 組는 『무엇』을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되는 『무엇』 그것이 多種多樣이겠다는 것을 推測할 수가 있는 同時에 이것으로 因하여 哲學體系 그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研究方法과 여러 가지 流派가 제각기 갈라질 수 있다는 事實을 發見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에서 말한 바와 가티 哲學은 人間의 思考의 學問인 以上 그 思考되는 (Etwas)(무엇)는 무엇보다도 먼저 人間 自體에 가장 直接的 原理가 되어있다는 것을 늦기지 않을 수가 업다.

우에 말한 바와 가티 『生』 及 『人間』이라는 것이 現代哲學의 主要問題가 된다고 하면 그런 原理 우에 建設된 哲學體系는 엇더한 것인가? 그것은 即

生の哲學과 哲學的 人間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兩者는 서로 關係를 갖지 않을까? 元來 哲學이란 如何한 意味로서든지 人間的 『生』의 要求에 根據하지 안한 것이 업는 것이다. 現今의 生の 哲學의 任務는 要컨대 人間的 生の 論理的 把握에 지나지 안는 것이다. 그러면 生이란 무엇인가? 生の 哲學者 『딜타이』는 生の 體驗, 表現, 了解의 作用 關聯에서 生 그것을 把握하라고 하였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生이라 創造的인 行爲者로서 그것의 活動的 構造를 自己 本質的으로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 다시 말하면 그것은 實踐的으로 行爲하는 것으로서의 『人間性』 또는 『人間의 存在』라고 할 수가 있다. 現代哲學에 있어서 『하이데거-하이데거』의 解釋學的, 自覺的 存在論이라고 하는 것도 要컨대 이와가튼 『生』即 『人間存在』의 理論的 解明에 지나지 안는 것이다. 그런데 生은 再言할 것도 업시 人間的 生 即 人間의 生이다. 그러므로 우에 말한 바 生の 哲學이나 存在論이나 모도다 究極에 있어서 『人間』이라는 概念을 前提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生の 哲學과 哲學的 人間學의 具體的 關係의 存在를 明白히 認識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 ◇○○ ◇

如何間 우리는 以上 論據에 依하여 現代哲學에 있어서 가장 問題가 되어있는 것이 무엇이겠다는 것을 大畧 推測할 수가 있다. 『푸릿츠 하이네만』은 그의 著 『哲學의 새 길』에서 遺問의 消息을 들려 주었다. 그는 어전 時代의 哲學을 理解하라고 하면 먼저 그것의 背後에서 움죽이고 잇는 歷史的 情勢를 살펴보아야 하겠다는 것을 말하였으며 이와가튼 見地에서 現代에 있어서의 人間的 思惟의 統一的 中心點을 解明하라고 하였다.